

野 “대통령이 협치 합의문 찢어버려... 제창 없인 협조 없다”

정치권 반발...정국 급속 경색

새누리 정진석 “유감...재고를”
청와대 ‘협치 회동’ 결국 ‘朴心3일’
보수·진보 이념논쟁 비화 우려도

국가보훈처가 16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이 아니라 합창 방식으로 부르기로 결정하면서 20대 총선 이후 화두로 떠오른 ‘협치’(協治) 분위기가 물 건너가는 상황이 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청와대 회동 이후 좋아질 것으로 기대했던 정국 분위기가 경색되면서 향후 국정운영이 더욱 힘들어질 것 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 기념곡 지정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뿐 아니라 보수, 진보 단체를 중심으로 사회 갈등을 초래하는 이념 문제로 비화할 우려도 제기되는 등 보훈처 결정의 후폭풍이 전 사회로 확산할 조짐이다.

◇정치권 반발, 협치 어려워지나=보훈처의 결정 직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승춘 보훈처장에 대한 공동 해임촉구결의안을 추진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도 유감 표명과 동시에 재고를 요청했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해임안에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 상견례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창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아직(행사까지) 이를 남았으니 재고해 주길 바란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경욱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기념식의 내용과 예식 절차는 유족과 광주시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 제창 여부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두 야당의 분위기는 더욱 협약했다. 보훈처장의 해임결의안 추진은 물론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도 명확히 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최고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3일 전에 협치와 소통을 강조한 회동이 무효화하고 대통령께서 협치와 합치를 강조한 합의문



3년전 5·18기념식장 태극기 든 차대통령 취임 첫 해인 지난 2013년 5월 18일 5·18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자 박근혜 대통령이 강운태 당시 광주시장이 건넨 태극기를 든 채 경청하고 있다. 왼쪽에서 두번째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을 찢어버리는 것”이라며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의 발의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나아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대 국회, 협치 가능한가’ 토론회에 참석, “20대 국회에서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협치를 위해서는 대통령 중심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훈처장에 대한 국회 해임촉구결의안 공동발의 제안을 수락하며 “만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안 된다면 우리는 정권에 협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비대위 회의에서도 “국정운영의 큰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념 논쟁으로 비화하나=문제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이 정국 경색에 그치지 않고 또다시 보수, 진보 진영 간 이념 논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국론 분열을 피하는 좋은 방법’을 지시했지만 결국은 국론 분열이 더욱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벌써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보훈처의 결정을 환영하고 나섰다. 일부 보수단체는 “합창도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5·18 단체는 “정부의 행태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반발했다. 차명석 5·18 기념재단 이사장은 이날 “1997년 정부 기념일 지정 이후 10년 넘게 기념식 때마다 제창해오던 노래를 정부가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민의를 저버리고 국론을 분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윤시장 “국민 뜻 무시...모두가 제창하자” 시의회 “기념식 참석 대신 피켓 침묵시위”

광주지역 정관계도 거센 반발

국가보훈처가 3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불허한 결정과 관련해, 광주지역 정관계의 반발이 거세다.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대신 당일 국립 5·18 민주묘역 출입구인 민주묘역 앞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촉구’와 ‘박승춘 보훈처장 퇴진’ 등의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기로 했다.

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본회의 중 열린 의원 간담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공식 기념곡 지정과 기념식 제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장현 광주시장도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와 논평을 통해 “국민의 뜻을 무시한 처사로 행사 참석자 모두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보훈처가 국론 분열을 이유로 제창을 불허한 것은 민주, 인권, 평화의 광주정신에 반하는 것이자 4·13 총선에서 표출된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5·18 기념곡 지정과 함께 기념식 제창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도 이날 “국가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과 기념식 ‘제창’을 즉각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더민주 광주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혹시나 했다더니 ‘역시나’였다. 국가보훈처가 올해도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은 물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모두 함께 부르는 ‘제창’마저 거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당 광주시당도 논평을 내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는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역사 앞에 다시 한 번 죄를 짓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국가보훈처의 결정에 대해 148만 광주시민과 함께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당은 이어 “중앙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 제출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광주시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며 국민적 합의를 깨뜨리고 있는 기념식의 의미를 축소하는 것”이라며 “국가보훈처를 강력히 규탄하며 36주년 기념식에선 제창 방식으로 불리울 수 있도록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서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제창 거부가 국론분열”...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 기념식 불참

5월 3단체는 “회원들 뜻따라 참석”

16일 국가보훈처가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거부 방침을 밝히자 지역사회 전반에서는 현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못 볼 타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정부기념식에 일절 참여하지 않기로 했고 5·18민주유공자 유족회를 비롯한 5월 3단체도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광주 급남로 옛 도청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핵심세력”이라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하는 박근혜 정권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어 “박 대통령은 특히 지난 13일 보훈처에 국론 분열 없는 좋은 방안 마련을 지시해놓고도 이런 결과를 낳았다. 이 점이 더 참담하다”면서 “이번 결정은 박근혜 정권하에서 5·18에 대한 폄하와 왜곡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해줬다”고 지적했다.

김영정 집행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오늘 긴급 회의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정부의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광주전남시민사

회단체는 올해 기념식에 일절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5월 3단체는 “자식 잃고 소복을 입은 유족회 어머니들이 정부에 불만은 많지만 행사장에는 가고 싶어 한다”는 회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부 기념식에는 참석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춘식 518민주유공자 유족회장은 “참담하다. 소복 입은 어머니들을 기념식에서 벌 면목이 없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보훈처에 지시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혹시나 기대했는데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HNT 하나투어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 총장점
(동구 불로동 96-7)
문의전화 062) 228-1199

TALK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총장점**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총장점 친구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 친구 맺기
- 우측 상단의 친구찾기 버튼
- ID검색에서 아이디 입력 또는 QR코드 스캔

이달의 추천 여행 도시! 호주 - 시드니 & 멜번

① 최대 10만원 교통비 지원 ② 커플당 양모 이불 1채 증정(골드코스트 상품 한정)

[ALL포함] 사전 예약 할인 제공

클래식 시드니/골드코스트 6일

PAW400_1 2,490,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포함/선택경비 있음

- 호텔 : 시드니/골드코스트 4성급
- 요일 : 매주 토/일/월
- 항공 : 아시아나 항공(OZ)/대한항공(KE)
- 특전 : 사전예약 최대 커플당 50만원 할인 호수산 와인 1병 증정
- 특식 : 캠퍼쿠 디너 크루즈

[ALL포함] 카페투어+그레이트 오션 로드

클래식 시드니/멜번 6일, 7일

PAW405_C 2,320,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포함/선택경비 있음

- 호텔 : 하나투어 시내 단독호텔 (4성급)
- 요일 : 매주 토/일/월
- 항공 : 아시아나 항공(OZ)/대한항공(KE)
- 특전 : 사전예약 최대 커플당 40만원 할인 멜번 로맨틱 카페투어 포함
- 특식 : 고품격 선상 디너 [\$80상당]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신청보험료, 관광상품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한다.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여행상품) 여행상품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가의 선택에 대한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 여하에 따라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관광사립자 등록번호 제29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9층 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 휴일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청탁/불편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영원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과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를 참조해 주세요.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현황 1 ●여행 유의 2 ●여행 자제 3 ●참수 권고 4 ●여행 금지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 www.HanaTour.com